

세계 최고 라벨인쇄기 개발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하는

태경기계공업

라벨인쇄기 전문 제작, 공급업체인 (주)태경기계공업 (대표 최유해, www.taekyoung.com)은 지난 1990년 이래 자동스티커 인쇄기 산업에서 기술개발과 도전정신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우수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스티커 인쇄기를 국내 및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계공급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과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기능과 성능 및 안전성 면에서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 향상된 기술과 정보력, 그리고 성실한 애프터서비스로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태경기계공업사를 찾아가 보았다.

라벨자동인쇄기로 이름 알려

지난 1990년 8월 동대문에서 태경공업사로 출발한 이 업체는 조그만 인쇄 주변 기기 장비 공급을 시작으로 인쇄업에 진출한다. 최 사장이 1980년대 초반 인쇄업종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라는 점과 당시 대부분의 인쇄 장비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 설립 동기가 됐다. 이후 꾸준한 기술연구로 자동타발기 개발에 주력하며 자체 파이를 키워가던 이 업체는 2년 뒤인 1992년, 국제인쇄산업전에 라벨 자동인쇄기를 출품하며 본격적으로 인쇄업종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기술력을 검증 받은 직후인 동년 11월, 말레이시아 등지에 주변기를 납품하며 인쇄기기 수출업체 반열에 오른다. 작지만 효율적인 운영 기법을 적

용, 반칼기 등 조그만 부품 하나까지도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단지 인쇄기 주변기기개발에만 총력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바로 안정된 국내 시장의 정착과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이 주된 목적이었다.

업무 분담을 통한 철저한 전문화

1994년 5월, 지금까지 분석해 온 국내·외 시장의 가늠을 척도하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사업장을 현재의 성수동 본사로 이전하게 된다. 이 계기는 첨단 PLC방식을 적용, 전문적인 라벨인쇄기 조립에 역량을 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바로 업무 분담을 통한 철저한 전문화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직원들이 R&D(기술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도 됐다. 이듬해인 1995년 3월, 이 업체는 필리핀에 주변 기기뿐만 아니라 하나의 라벨인쇄기를 완제품으로 조립해 수출하는 데 성공한다. 설립 5년 만에 12명에 불과한 직원들의 힘으로 자체 제작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었다. 이 수출을 시작으로 4년만인 1999년 홍콩과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에 완제품의 라벨인쇄기를 공급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탄탄한 내·외부의 조직력을 활용해 국내 라벨인쇄기 제작의 선두권에 진입한 2000년, 법인 등록을 계기로 확장기를 맞이하게 됐다.



기술개발에 주력

이후 라벨 인쇄기기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 실화에 주력하던 2002년 5월, 한국기계연구원이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며 출시 기종이 하나의 고유 상품으로 인정받을 만큼 기술력의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소량 다품종 시대의 고객들이 원하는 물량의 실시간 대 파악과 작업자 입장에서 설계된 기기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년 7월, 설립 초기부터 끊임없는 기술 개발의 정점에 있던 '자동 슬리터 파지 분쇄장치'가 실

용신안에 등록된다. 현재는 구전 마케팅을 통해 일정규모의 판매를 확보하고 전시회, 전문잡지 등의 광고를 통해서 신규 거래처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늘 고객 곁에서 고객의 불만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일단 잘 만들어야 한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기종들은 ▲라벨자동인쇄기(TK-4530LMPH, TK-4025LMPH) ▲라벨자동튐슨기(TK-

3232LM) ▲라벨자동롤 · 지관재단기(AS-320, 300) ▲라벨검출 · 와인드기(TK-5000K, TK-500) 등이다.(로터리는 단종) 이 기종들은 제품 설계에서 주물, 조립, 제작, 운반이 철저한 업무 분담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각 공정 단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설계이다. 여기에는 최 사장이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배경이 숨어 있다. U/V 시스템이 적용되던, CI 인쇄드럼 방식이 채택되던 공정 과정에서 주안점을 뒤야 하는 부분은 설계다. 한번 작업하기 시작한 제품의 초기 공정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를 수정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투입이 만만치 않아 결국은 큰 손실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 수많은 설계 과정을 통한 노하우로 수많은 라벨인쇄 공정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작된다.

솔선수범을 통해 자발적인 업무환경 조성

그는 직원들보다 30여분 먼저 회사에 출근 한다. 그의 이러한 사업 운영은 설립 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자신이 먼저 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 전체 인쇄기기 시장의 흐름을 한 눈에 가늠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게 됐다. 단기적인 안목을 버리고 별다른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제품 관리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대해 “내 자신이 먼저 행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하나의 사업체는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직원들 모두가 회사의 대표

최 사장은 ‘제일’, ‘최고’, ‘이윤’ 등도 중요하지만 직원을 내 가족처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안전한 일터에서 구성원들 모두가 스스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회사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330평방미터(약100여평)의 공장 내부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하지만 단지 고품질의 인쇄기기를 제작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노력에 대한 대가도 철저하다. 이를 위해 5년 전인 2003년 1월부터 격주 5일제 근무를 도입하고 직원들의 사기와 복지증진을 위해 한발 앞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차한잔 최유해 사장



책임과 실천을 통한 경영

“책임과 실천”은 회사의 사훈이자 제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최유해 사장(51)은 주변기기를 포함, 라벨인쇄기 제작에만 매진해 온 지난 18년의 노하우에 대해 이렇게 표명했다.

IMF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가 우선이지만 변함없는 책임과 실천정신을 통해 고객과 함께 한 결과가 오랫동안 폐사가 꾸준히 성장하여 지금의 태경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오는 8월 중순경 경기도 광주로 사업장을 확장해 장기적으로 인쇄산업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을 고려한 인쇄 품질의 최고급화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작업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있다. 바로 제품이 출시되면 신체 · 정신적으로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기본적인 회식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산에 오르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의 화합이 이뤄질 수 있는 모티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성과급을 지급할 시에도 형평성을 고려해 전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일률적으로 제공된다. 그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지만 눈에 보이는 이윤만을 보고 운영하지는 않는다”라며 “우리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노력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태경기계공업에는 1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가 절반을 넘는다.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